



"외갓집 콩죽에 잔뼈가 굵었겠나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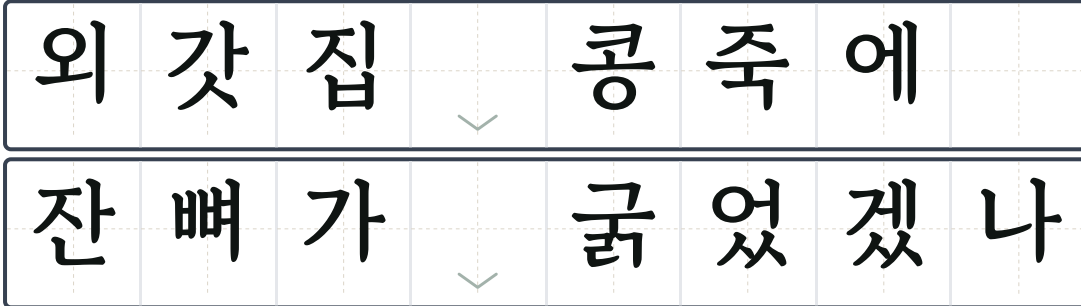
뜻: 나는 남의 도움만 받으며 편하게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,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자립 · 거절 · 자존심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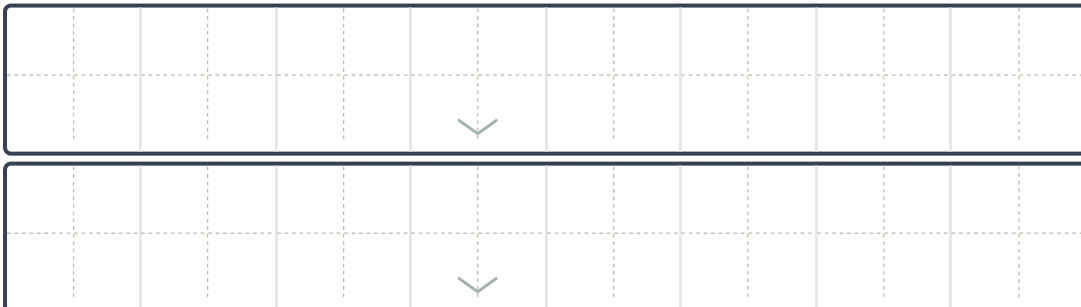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 ㄱ ㅈ] [ㅋ ㅈ ㅇ] [ㅈ ㅂ ㅈ] [ㄱ ㅇ ㄱ ㄴ]

웹에서 보기

